증례발표

# “아빠의 기도”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환자 소개

### <개인정보>

- 성명: 조○○ (M/44)
- 종교: 천주교
- 진단명: 구불결장암
- 과거력: 특이 소견 없음.
- 입원 경과: 환자는 필리핀에서 거주하던 중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진행되어 필리핀에서 수술하였고 수술 중 대장 용종 및 장폐색이 발견되었으나, 당시 병원에서는 수술하지 못하고 장루 생성 및 충수돌기절제술 시행하고 조직검사만 진행함. 조직 검사상 대장암 3기 진단받음. 이후 귀국 후 본원 외과에서 수술 및 항암 치료받았으나 더 이상의 치료 불가하여 2월 호스피스 의뢰됨.

### <호스피스 등록 시 상태>

- 활동 상태: ECOG 4
- 의식 상태: 명료
- 배뇨/배변: 유치 도뇨관 및 colostomy 유지
- 활력 징후: 혈압. 맥박. 호흡 안정적이나 간헐적 발열 양상 있음
- 신체 검진: 항문/복부 통증, 구역감, 발열, 호흡곤란
- 삽관: 중심정맥관, 유치 도뇨관

## 진료 부분

### <병력>

2019.11.27 T-loop colostomy (at 필리핀)
2020.02.23~11.09 한국으로 귀국 후 본원에서 항암 치료받으시다 개인 사정으로 치료 중단
2021.04.02 복막 파종으로 대장절제술
2021.04.19 직장 스텐트 삽입 (seeding)
2021.04.26~10.30 항암치료 다시 시작하였으나 환자 개인 사정으로 중단
2022.01.26 항문 및 복부 통증 조절 및 baseline CT 후 돌봄 계획 결정 위해 입원함
2022.02.03 장폐색 치료 중 장천공으로 응급수술 시행함.

### <주 증상에 따른 진료 과정>

**# 1. 통증**

**(사정)**

- 복강 내 전이로 인한 복부 통증
- 직장파종으로 인한 항문 통증
- 복부 통증 및 전이로 인한 식이 섭취 불량

**(치료 계획 및 중재)**

- 통증 유발 요인 확인
- 통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함.
- 통증 양상 및 통증 강도, 돌발성 통증의 빈도 및 강도를 고려하여 진통제 용량 조절함.

**(반응)**
- 통증 강도에 따른 기저 진통제 용량 증량 및 속효성 진통제 변경 후 속효성 진통제 투여 횟수 1~2회/일 감소함.
- NRS 2점 이하로 감소

**#2. 호흡곤란**

**(사정)**
- 주관적 호흡곤란 호소 심한 상태로 의학적으로 호흡곤란을 야기할 문제는 없음.
- 불안 양상으로 인한 호흡곤란 관찰됨.

**(치료 계획 및 중재)**
- 저용량 산소 공급
- 불안 및 야간 수면장애 지속될 경우 완화적 진정 적용 고려
- 불안 감소를 위한 요법 치료 연계
- 증상에 대해 불안에 하지 않도록 환자와 가족에게 지속적 교육 제공

**(반응)**
- 산소 제공 후 호흡곤란 호전되었다 표현함.
- 요법 연계 후 불안 호소에 관한 표현 감소함.
- 불안감 호소는 없으나 야간 수면장애 여전하며 주로 낮에 주무시는 등 낮과 밤이 바뀐 상태유지 중임.

**#3. 구역/구토**

**(사정)**
- 복강 내 전이로 인한 장폐색
- 음식물 섭취 후 구역/구토 및 통증 호소

**(치료 계획 및 중재)**
- 금식 유지함.
- 비위 삽관을 후 배액을 통한 구역/구토 완화

**(반응)**
- 비위관 삽관 후 배액 양상 양호하며 구역/구토 및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이 완화되었음.
- 비위관 삽관 후 수분 섭취를 통한 구갈 완화 효과가 있었으며 제한적 수분 섭취가 가능

## 간호 부분

### <간호학적 진단>

**#1. 악성 종양과 관련된 통증**

**(사정)**
-"배하고 항문, 특히 항문이 아파요."
- 직장 내 파종으로 인한 항문 통증 호소함.
- 돌발성 통증 시 찢어지는 듯한 통증 호소하며 NRS 6~7점 나타냄.
- Contineous morphine 30mg IV 투여 중이며 prn)Morphine 5mg IVS 1~2회/day 투여됨.

**(계획 및 중재)**
- 통증에 관해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함.
- 효과적인 통증 관리를 위하여 통증 척도와 통증 도구 이용하여 통증 교육 실시함.
- 효과적인 통증 조절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부적절한 이해, 마약성 진통제와 관련된 부작용, 중독, 호흡곤란, 죽음의 재촉의 위험에 대한 부적절한 두려움 등에 대하여 설명함.
- 처방에 따라 투약하고 그 효과와 부작용을 모니터함.

**(반응)**
- 통증 발생 시 적극적으로 표현함.

- 적절한 약물 사용으로 인해 NRS 1~2점으로 감소됨.

**#2. 불안**

**(사정)**

- "숨이 차요. 답답해요."
- "잠들면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잠을 못 자겠어요."
- 호흡곤란 호소하나 SPO2 및 RR 안정적임.
- 불확실한 예후에 관한 불안 표현함.
- 필리핀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 미안함, 그리움 등에 대해 표현함.

**(계획 및 중재)**

- 불안 요인 사정함.
- 저용량 산소 공급함.
- 호흡 양상 사정하면서 호흡곤란 시 심호흡하도록 교육함.
- 두려움 및 불안감에 대해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함.
- 환자에게 자주 방문하며 관심을 가지고 지지함.
- 영적 돌봄 원하여 원목팀 연계함.
- 불안 감소를 위한 음악요법 연계함.
- 필리핀에 있는 자녀들과 자주 영상 통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녀들 사진을 액자로 제작하여 제공함.

**(평가)**

- 원목팀 연계 후 세례받으셨고 세례 후 불안감 눈에 띄게 호전됨.
- 비대면 음악 요법 연계하여 환자의 정서적 지지에 도움을 주었으며 환자 편안함 느낀다고 표현함.
- 지속적인 방문 및 관심, 방문 시 함께 기도하기를 통해 환자가 웃으며 고맙다고 말하는 등 표정이 밝아짐.

## 사회복지 부분

**<개인력>**

- 사별, 자녀 2명, 형제 3남 중 셋째
- 고졸, 무직, 기초생활수급자
- 내향적인 성격, 고집 강함.
- 경제적 문제로 아버지 및 형들과 여러 차례 갈등 있었으며 환자의 빚을 첫째 형이 대신 청산함.
- 30대 초반 사업 부도로 인해 빚에 시달리게 되면서 필리핀으로 이주하여 생활함. 이후 배우자를 만나 결혼생활 하였으며 슬하에 자녀 2명(7세, 5세)을 둠. 셋째 출산 과정에서 과다 출혈로 아이와 배우자 모두 사망함.
- 환자 암 진단 후 한국으로 입국하여 항암치료 여러 차례 시도함.

**<가족력>**

**• 원가족**

- 부(70): 인천 거주, 주 의사 결정자, 고령으로 돌봄 참여에 대한 부담 호소, 환자의 말기 병식에 대한 이해력 낮음.
- 모(66): 인천 거주, 환자의 말기 병식에 대한 이해력 낮음. 신부전으로 투석 중임.
- 첫째, 형: 50대 중반, 환자 말기 병식, 예후 인식 있음, 환자에게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제공(과거부터 환자 빚을 청산해줌.)
- 둘째, 형: 50대 초반, 미혼, 환자 말기 병식, 예후 인식 있음.

**• 현가족**

- 배우자: 사망
- 자녀(7세, 5세): 필리핀 거주, 환자의 의료적 상황 알지 못함. 영상통화로 환자와 연락 주고 받음.

**<사정>**

- 환자는 입원 시 "마음이 불안해요.", "세례를 받고 싶어요." 등의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함. 환자는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등을 호소하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표현함.
- 형제 및 아버지는 직장생활로 간병 참여가 어려워 간병인이 돌봄 제공하고 있음. 환자의 지지체계 약하며 보호자 부재한 것에 대해 외로움 표현함. "외롭지만 아버지랑 형이 제 간병비를 다 내주고.…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 환자는 필리핀에 두고 온 자녀들이 자주 생각이 나고, 과거 아버지와 형들에게 했던 잘못에 대해 후회스럽다고 말함. "아버지에게 잘못했던 거 고생시켰던 것들이 후회스럽고 죄송해요. 아이들에게도 저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힘들어요."라고 표현함.

**<개입 및 결과>**

- 환자와 상담 진행함. 기력 없는 모습 있었으나, 환자의 욕구와 바람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자 천주교 세례 요청함. 추후 성직자 연계 가능함을 안내함.
- 의료적 상황 변화에 심리적 불안, 걱정 등은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설명하였으며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호스피스팀과 상의할 수 있도록 안내함.
- 환자는 "좁은 병실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답답해요."라고 함. 병원이라는 제한된 환경이지만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음. 신체적인 증상 등에 집중하는 것보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독려하였으며, 완화의료팀이 도와줄 것임을 알림.
- 환자 욕구 반영 후 음악요법 프로그램 연계함. 음악요법 참여 후 느꼈던 감정을 자유롭게 토로할 수 있도록 함. 환자는 그동안 가족에게 미안했던 것들 특히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등을 이야기함. 떨어져 있는 자녀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함.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정서적 지지 제공함.
- 어버이날 행사로 비누 꽃 카네이션 드리며 가족의 사랑에 대해 안내해드림.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글로도 표현해 보기를 독려함.
- 환자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 호소하여 경제력 재평가함. 재산 및 부채 정도 확인함. 호스피스 후원(경제적 지원) 필요 서류 안내함. 임종시 장제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 환자 임종기 변화에 보호자 수용 정도를 확인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독려함. 환자 아버지는 "아직 보내고 싶지 않은데, 보낼 준비가 안 됐어요. 함께하고 싶은데"라고 함. 두려움과 심리적 우울감에 대해서는 애도 과정 중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임을 설명하며 공감 기법 사용하여 정서적 지지 제공함.
- 환자와 함께 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추억할 수 있도록 격려 및 지지 상담 제공하였으며, 환자가 평소에 좋아하는 성가곡을 잔잔하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함.

## 요법 부분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음악 요법 시행하였음.**

**〈1회기〉**

밝은 표정으로 병원 생활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호흡이 어려워 작은 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전달하심. 세례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차이를 말씀하시며 지금은 많이 안정적인 모습으로 보임. 축복송을 들려드릴 시 눈물을 조금 보이면서 눈을 감고 따라 부른 후 가슴에 손을 대며 좋다는 표현을 하시며 엄지손을 올려 보이기도 하심. 사랑을 위하여 곡으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랑은 변할 수 있으나 하느님의 사랑은 늘 변치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권면해 드릴 시 고개를 끄덕이며 편안한 표정이셨음. 듣고 싶은 곡을 한참 생각한 후 마리아라고 하셨으나 정확한 곡을 알지 못해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기로 약속하며 로사리오의 기도드릴 때 곡으로 마리아의 사랑 가사로 전달해드릴 시 동일하게 감사하다는 표시와 눈물을 닦으며 웃음을 보이셨음. 신앙의 힘으로 평안을 가지며 잘 지내시는 모습이 다음에도 뵙기를 바란다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곡으로 마무리함.

**〈2회기〉**

컨디션은 양호해 보였고 목소리도 지난 시간보다 더 밝고 힘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음. 창문밖에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노래를 들려드릴 시 과거 어릴 때 너무 놀고 부모님 맘 아프게 한 기억들이 떠오른다시면서 과거에 똑똑하였으나 친구 따라 많은 잘못을 짓고 구치소 다녔던 기억들을 털어놓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고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제일 힘들다고 하심. 지금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판사든 내가 원하는 파일럿이 되고 싶다고 고백하심. 떨어져 있는 자녀들도 보고 싶은 맘이 많다시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빠가 곁에서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하심. 치료사는 모든 날 모든 순간에 곡을 들려드리며 함께 미래를 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권면해드린 후 자녀들이 아빠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를 소개하며 참 좋은 말!! 노래를 들려드리니 입가에 미소를 보이시며 웃는 모습이 관찰됨. 자녀들이 "아빠 사랑해요!!" 라고 외치며 늘 응원할 거라고 그 응원을 입어 지금, 이 순간 잘 버티시고 힘내시길 바란다며 지원해드린 후 마무리함.

## 원목 부분

**<영적 사정 및 진단>**

호스피스팀에서 원목자(사제)에게 환자 방문 및 세례를 요청하여 환자를 방문하였다. 환자는 원목자와의 첫 만남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 환자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살아오면서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었다."고 말하였다. 환자는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잘 알고는 있었는데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아서 세례를 미루었다고 했다.

환자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환자의 주된 영적 고통의 요인은 '하느님과의 관계'와 가족과의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곧, 살아오면

서 일찍이 하느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한 것과 외국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는 자녀들과 만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고통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환자는 불안, 고독감, 슬픔,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었다.

**<영적 돌봄>**

영적 돌봄 계획은 환자가 마주하고 있는 '하느님과의 관계'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세 단계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1) 세례성사**
**(2) 지속적인 방문과 대화**
**(3) 기도를 통한 돌봄**

**(1) 세례성사**

환자는 원목자와의 첫 만남에서 세례에 대한 강한 열망을 표현하였다. 그래서 환자에게 이제 세례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예수님 상본(그림)을 환자에게 보여주었다. 환자는 상본을 가슴에 품고 지난날들을 회상하며 "그동안 정말 많이 기다렸었는데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며 한참을 계속 울었다. 원목자는 환자에게 "하느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형제님 세례 주시려고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다고…" 말을 하니 환자는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이후 환자에게 세례를 주었고, 세례 후에 마음이 어떠하냐고 물어보니 환자는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좋다고 말하였다. 이후 원목자는 환자에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늘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앞으로 환자와 원목자 그리고 하느님 이렇게 셋이 같이 지내자고 말해주었다.

**(2) 지속적인 방문과 대화**

세례성사 이후 환자에게 지속적인 방문은 매우 필요하였다. 왜냐하면 가족으로부터 지지받기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지속적인 방문을 통하여 환자에게 늘 원목자가 함께 있음을 알려주었고, 많은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말하며 계속적인 지지를 해주었다. 또한 방문을 하며 환자에게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물어보며, 환자가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였다.

**(3) 기도를 통한 돌봄**

환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별한 요소였다. 그 이유는 환자가 기도를 통해 큰 힘을 얻고 있다고 자주 표현하였기 때문이었다. 원목자가 방문할 때마다 기도를 함께 바치기를 원하였고, 원목자가 방문하지 못할 때는 방송에 나오는 기도를 통해 기도를 바친다고 하였다.

나아가 환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환자가 마주한 어려움들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다. 왜냐하면 환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며 이 부분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매번 기도하기 전에 어떠한 지향으로 기도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환자는 주로 하느님께서 가족들을 잘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 말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이 많이 느껴졌다. 원목자는 환자에게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분명 잘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였고, 나아가 그 기도는 분명 가족들에게도 잘 전해질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바칠 때면, 환자는 마음이 참 편안하다고 하였다.